

도·재외동포청, 중기 해외 진출 본격 지원

‘2025 JB-FAIR’ 개최... 23개국 83개 바이어·도내 120개 기업 참여·현장계약 약300만 달러 체결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에서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이 약 300만 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83개 바이어와 도내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 3개 기업이 약 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다수 기업이 추가 상담 일정을 확정하며 후속 수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중국사무소, 통상닥터 등을 활용하고, 바이어 수요 분석부터 기업-제품 매칭, 제품 경쟁력 점검까지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 수요 기반 상담회를 운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해외 규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했다.

방법 △현지 유통망 진출 사례 등이 공유되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기업 맞춤형 후속 컨설팅 △해외 시장 반응 테스트 지원 △국가별 수요형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성과 점검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는 재외동포 경제 네트워크를 JB-FAIR에 접목해 글로벌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관세·인증·판로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수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어장정화선, ‘해양환경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도내 연안 1151ha 정화... 해양폐기물 총 121톤 수거 성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투입한 어장정화선(전북901호)이 2025년 공유수면 정화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양환경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전북901호는 2023년 67억 원을 투입해 건조된 171톤급 선박으로, 800마력 엔진 2대와 폐기물 수거용 크레인 등 정화작업 특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선박 전·후방에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해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수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매년 초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및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화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군산(641ha), 부안(360ha), 고창(150ha) 등 총 1,151ha의 공유수면을 정화해 32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어선 및 연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어구·폐그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선상 집하장을 적극 활용하여 총



10회 접안, 81톤의 해양폐기물을 육상으로 이송·처리했다. 이를 통해 연안 발생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선상집하장 기반의 해양폐기물 처리체계를 본격화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야도에서 금강하구에 이르는 해역에 대량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되자, 전북도는 충남도와 협력해 ‘광역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충남의 늘푸른충남호(정화운반선)와 협력 수거작업을 통해 8톤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거·운반함으로써, 지자체 간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 모델을 실제로 구현했다.

/이만호 기자

도, 주민도움센터 확대·개편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서

내년까지 13개 시군 14곳 확대...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생활밀착형 복지체계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도움센터’ 확대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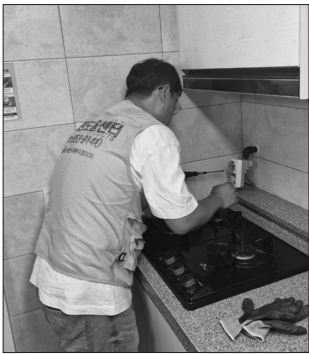
도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13개소의 주민도움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13개 시군 14개소로 확충해 촘촘한 지역 돌봄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전주시가 2개소로 확대되고, 나머지 시군은 각각 1개소씩 운영하게 된다. 군산시는 ‘우리동네 흥반장’ 사업을 통해 주민도움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형 주민도움센터는 2011년 1월 25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회복지심

부름센터’를 전신으로 하며, 2022년부터 명칭을 변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자치도만이 운영하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복지 취약계층에게 시장 보기, 병원 동행, 민원 대행, 말벗 서비스 등 일상에서 밀착된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는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며, 상주 전담인력 3명이 지속적이고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현재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완주군이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9월 기준 주민도움센터는 총 3만 7,5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원 동행·민원서류 접수·물품 전달 등 실질적인 생활지원 외에도 375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으로 연결했다.

했다. 정서적 지지와 긴급상황 대응까지 담당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5년 이상 지속된 현장 중심 복지모델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지자체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주민도움센터를 지역 돌봄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삼아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주민도움센터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육군 제35보병사단, 2025년 호국훈련 실시

육군 제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2025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동 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합동 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민·관·군·경·소방의 통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따라서, 이번 훈련 기간 중 해안침

투상황,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피해복구, 대량사상자 관리 등 후방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육군 35보병사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호국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훈련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국번없이 1338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기후 적응형 작물 육종 신호탄 마련

단일세포 C4 광합성 식물 ‘비에너티아’ 유전체 세계 최초 해독

농진청은 단일세포 내에서 C4 광합성을 하는 식물인 비에너티아(Bienertia sinuspersici)의 게놈을 세계 최초로 해독했다고 밝혔다.

비에너티아는 한 세포 안에서 두 종류의 엽록체가 협력해 C3와 C4 광합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식물로, 엽면이 많은 사막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기후 적응형 작물이다.

연구진은 9개 엽색체(3.61Gb)로 구성된 고품질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으며, 약 4만 개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를 밝혀냈다. 이는 단세포 C4 광합성 연구의 표준 유전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에너티아의 베타-탄산무

수화효소(BsCA_{β2}) 기능을 규명해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국내의 특허를 출원했다. 아울러 염분 환경 적응을 위한 소금수용체 유전자(BsHKT1:2)의 기능도 규명해 200mM 고염 환경에서도 견강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Scientific Data’에 게재되었으며, 원시데이터와 유전체 조립 데이터는 NCBI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전세계 연구자들과 공유된다.

농촌진흥청 권수진 디지털육종지원과 과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벼, 콩 등 주요 작물의 기후 적응형 육종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소방본부, 닥터헬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

소방·의료·해경·군 등 유관기관 참여... 골든타임 확보위한 닥터헬기 운용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닥터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닥터헬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을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무주태권도원에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방, 의료기관, 해양경찰, 군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닥터헬기 출동 및 인계 절차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닥터헬기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활성화 간담회 △인계점 관리자 및 이용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토의 등이 마련됐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닥터헬기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자 지역 응급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구급 시스템”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이 한층 긴밀히 협력해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망 유재승(1963. 9. 15.생 2025. 10. 12.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5노단3754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김광현
- ▶피상속인: 망 유재승(1963. 9. 15.생 2025. 10. 12. 사망)
- 최후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4-69(금암동)
- ▶공고인: 유재영
- ▶공고기간: 2025. 11. 14. ~ 2026. 1. 13.
- ▶상속한정승인 수리일: 2025. 11. 12.
- ▶주소: (청구대리인) 박계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60-1 (여의동2가)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